

테리우스의 눈물

2019년 *월 *일 밤. 11시. 일본 구마현에 사는 니가가라 하와이상은 바닷가의 호텔 커피숍 '쓰시마'에 혼자 앉아 상념에 잠겨 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건너다보이는 밤의 구마모토 원전의 불빛이 아름답다.

한때 그가 3년간 몸을 담았던 직장... 그가 사랑하는 여인도 그 원전의 홍보 부서에 있다.

내일 그는 지난 수 년간 사귀어둔 까투리 꼬꼬상의 도움을 받아서 원전에 잠입할 예정이다. 작고 강력한 특수 폭탄 C66 6개는 이미 원전 시설 내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다.

원전 구내에 들어가서 그가 가져온 바퀴벌레 미니 로봇을 풀어놓으면 끝이다. 그 녀석들이 원전 건물로 기어 들어가서 주요 배관에 설치된 폭발물의 스위치를 깨무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다. 냉각재의 유출과 함께 적납 용기까지 깨어질 것이다.

그가 한때 몰두하였던 일본 유태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金閣寺)」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아름다운 금각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숨어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던 주인공의 심리가 이해가 될 것 같다.

저 원전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원자력, 그 기만적인 거대 과학 기술은 이제 인류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가 저지를 이번 구마모토 원전의 폭발 사고는 인류사에서

원전 완전 추방의 계기가 되는 상징적인 대사건이 된다.

그의 이름은 '핵 추방의 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지금의 법규범(法規範)?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야.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지키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범인(凡人)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현재를 살지 않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미래야. 나중에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거야. 그는 중얼거린다.

그는 국제 테러 조직의 행동대원이다. 그 조직의 이념은 반문명적인 모든 것을 공격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철저히 점 조직으로 움직이고 실패할 경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이념에 철저히 동조하여 가입하였고 서약을 하였으므로 그는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실패는 어쩔 수 없지만 배신할 경우 그 보복은 가혹하다. 이러한 테러 집단은 거대 조직, 거대 국가와의 싸움에 가장 적합하다.

한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며 다수 민간인들에게 달려드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학창 시절 잘 생긴 외모와 저항적인 성격 때문에 그의 별명은 테리우스였다.

어릴 때부터 조용히 공부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이는 일본의 교육 제도와 문화 속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 2년 반을 지냈다. 소위 히키코모리가 된 것이다. 그는 식구들과도 얼굴 마주치기를 거부한 채 끼니마다 방 앞에 어머니가 가져다 놓는 밥을 받아 먹고 방 안에서 컴퓨터만을 벗 삼아 지냈다.

그러다가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환경 운동을 하는 극단적인 activist 집단을 접하고 그들의 이념에 빠져들었다.

지구를 파멸시키고 있는 물신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그들의 주공적 대상이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학습과 의식화 과정을 마치고서 사회로 나왔다.

그는 전문학교를 들어갔고 졸업 후 원전 보수 회사에 취직하였다. 그리고 일하기를 5년여, 이제 그는 그의 뜻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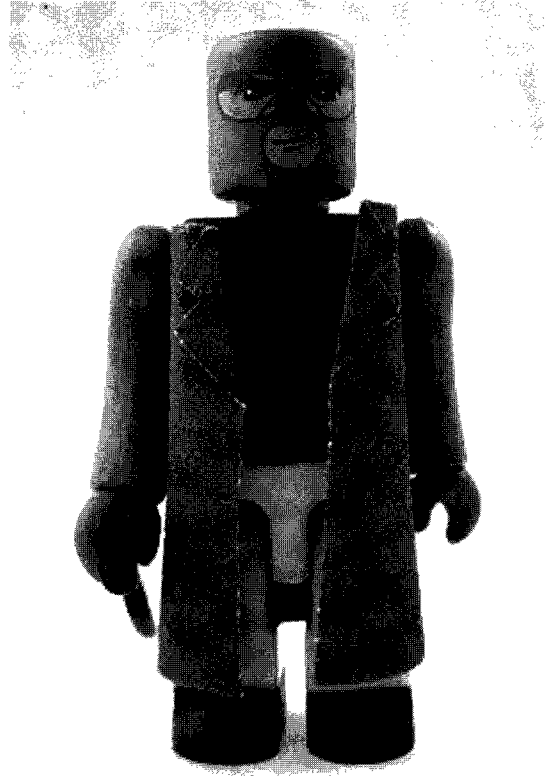
그가 속한 집단은 극한 반핵 단체이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량 방사능 방출 사고가 나더라도 원전을 폭파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중들이 피해를 입고 그것을 체험해야 원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그가 사랑하는 꼬꼬상이 희생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만 사실을 말하고 혼자 피하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의 명장 이순신이 전쟁 가운데 그가 사랑하던 여인이 죽은 뒤 부하들이 와서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까 묻자 '내다 버려라' 하고 딱 한 마디 했다고 한다. 일본에 소개된 오래 전 한국 소설 「칼의 노래」인가에서 읽었다.

그래, 큰일을 하는 자는 여인에, 그리고 현세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냐.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요즈음 그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가 신봉하는 '붉은 지구단' 당수가 마약과 아동의 국제 밀수 조직과 연관되어 수 천만 달러를 챙겼고 국제경찰이 수배중이라



는 보도가 나온 후부터다.

그가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 조직 이념의 정당함이 부정될 수는 없어. 그는 마음을 다잡는다. 여기서 나의 이념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나의 존재가 무너져.

'천국의 계단'이라는 음악이 흐르면서 휴대폰 화면에 꼬꼬상의 귀여운 얼굴이 떠오른다. '자기야? 한 심분 늦겠어. 괜찮지? 그렇지?' 그녀는 테리우스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들떠있는 듯 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핀다. 아. 내일 그는 아무래도 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